

가요계 이슈메이커 지드래곤, 긴 공백기 깨고 신곡 작업 중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소속된 아이돌 그룹 '빅뱅'은 2006년 데뷔해 대한민국 가요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룹 중 하나다. 빅뱅은 2007년 8월 발매한 '거짓말'로 음반 판매량 8만장을 기록했으며 당시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또한 빅뱅은 2008년 일본에 진출해 현지 오리콘 월드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등 해외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붉은 노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빅뱅은 멤버들의 각종 사건사고로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YG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가수 그룹 중 하나다. 원래 빅뱅은 5인조 그룹이었지만 성대매 알선 혐의 논란 후 승리가 팀에서 탈퇴하면서 현재는 지드래곤, 탑, 태양, 대성 4인이다.



갤러리아포레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지드래곤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다. MBC 유아교육프로그램 '뽀뽀뽀'에서 처음 얼굴을 비추는 '뽀뽀뽀'의 안무가 서용화 씨의 눈에 띄어 한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당시 가요계의 최고 히트곡은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였는데 지드래곤은 이 방송에서 '날개 잃은 천사'에 맞춰 춤

과 립싱크를 똑같이 해내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그에게 '꼬마롤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드래곤이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지드래곤이 가족들과 놀러간 스키장에서 열린 춤 대회에 참가해 1등을 차지하면서부터다. 이 대회의 사회자였던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그의 재능을 곧바로 알아보고 연습생으로 스카우트하면서 지드래곤은 8세 때부터 SM에서 5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지드래곤은 YG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겼고 양현석 대표는 초등학교생인 그가 랩을 구사하는 모습에 반해 그의 어머니를 설득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 지드래곤은 세븐, 휘성, 거미 등 소속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약 6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2006년 빅뱅의 리더로 데뷔했다.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지드래곤이 앨범에 수록된 곡 대부분을 작사·작곡하고 프로듀싱까지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요계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지드래곤은 2008년 Mnet에서 선정한 '10년 후가 기대되는 아이돌' 1위에 뽑혔으며, 같은 해 '올해를 빛낸 작곡가 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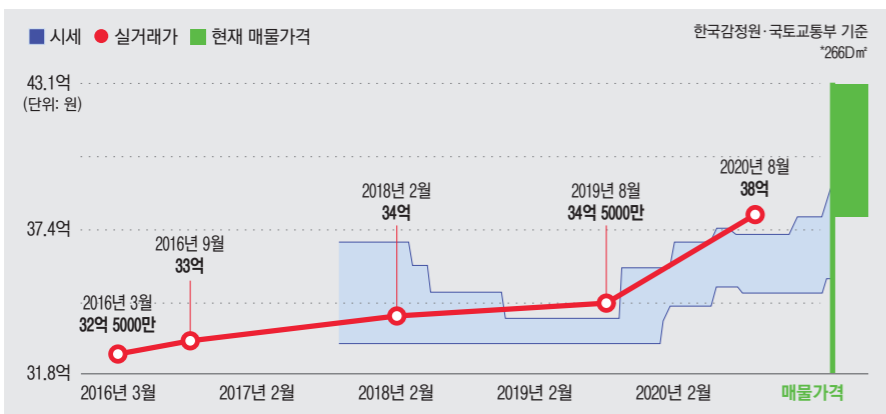
에 YG 대표로 선정됐다. 2009년에는 그의 생일인 8월 18일에 맞춰 솔로 정규 1집 앨범 'Heartbreaker'를 발표했고 2012년 9월에는 미니앨범 1집 'One of a Kind'를 내놨다. 이어 2013년 9월에 정규 2집 앨범 'COUP D'ETAT', 2017년 6월에는 미니앨범 2집 '권지용'을 발표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2018년 3월 빅뱅의 '꽃길' 발매 이후 긴 공백기를 깨고 신곡 작업과 함께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의 열애 소식도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블랙핑크 제니와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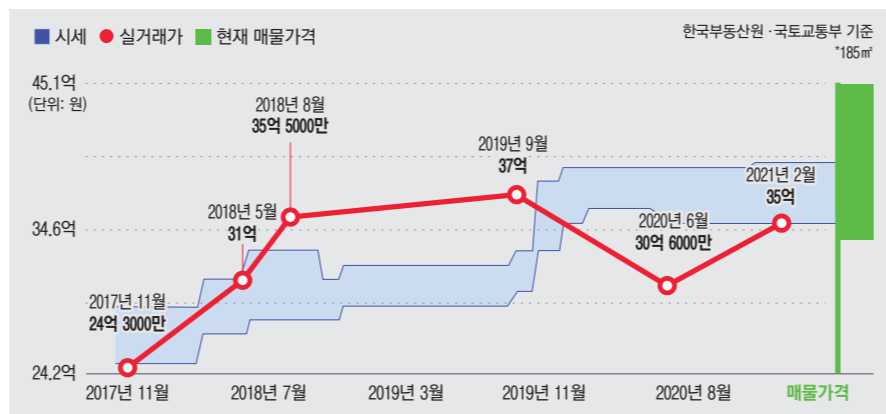
갤러리아포레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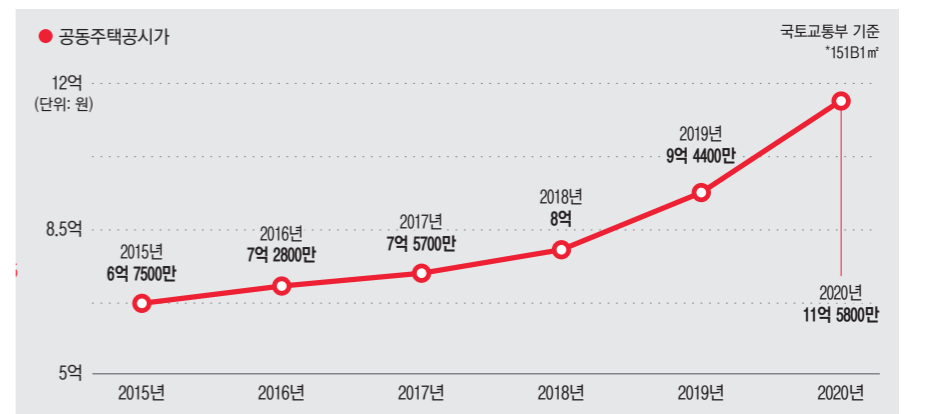
트리마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18



서울숲힐스테이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843



양수화

현)글로리아 오페라단 단장



양수화 글로리아 오페라단 단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 브루클린음악대학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91년 글로리아 오페라단을 창단해 오페라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출연도 했다. 양 단장은 성경 시편에서 솔로몬과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읽다가 시, 모든 악기, 호흡이 있는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을 발견하는데, 오페라가 시편의 내용과 비슷하게 악기, 성악, 무용, 무대미술 등이 모두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페라단의 명칭에 라틴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라는 뜻의 '글로리아'라는 단어를 넣었다. 그는 평택대학교 부총장, 21세기 경영인 클럽 부회장, 예술의전당 후원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동해(이동해)

현)가수, 탤런트



으로 활동하다가 슈퍼주니어로 데뷔했다. 독특한 음색의 리드보컬로 슈퍼주니어 보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공략용 유닛 '슈퍼주니어-M'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멤버 은혁과 함께 유닛 '슈퍼주니어-D&E'를 결성해 꾸준히 활동했다. 슈퍼주니어-D&E는 올해로 결성 10년 차다. 그는 싱어송라이터로서도 뛰

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다. 배우로도 활동한 동해는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에서 조연으로 출연했고 이후 대만드라마 '화려한 도전', 채널A 드라마 '판다양과 고슴도치', OCN 드라마 '신의 퀴즈 시즌4' 등에 출연했다.



김선정

전)디올메디바이오 회장



김선정 전 디올메디바이오 회장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화재 투자운용팀장 상무, H&B투자법인 대표이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디올메디바이오는 금융전문가인 그를 영입했다. 이 회사는 2012년 디올메디컬센터가 바이오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유니모씨엔씨를 인수한 뒤 사명을 디올메디바이오로 변경했고 2015년 미래아이엔지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래아이엔지는 솔루션사업, 방산사업, B&E

컨텐츠사업이 주요 사업이다. 한편 2013년 김선정 전 회장은 민우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글로벌 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도상국 금융협력 및 산업기술자본 투자 등의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나무코프(사모펀드)를 설립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동대구역세권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이달 중 분양

대구광역시 동구

보광종합건설은 대구 동구 신암동 207-1번지 일원에 짓는 '동대구역 골드클래스'를 3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수성 골드클래스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이후 대구 지역에서 두 번째 골드클래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대구역 골드클래스는 대지면적 1만41㎡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6개 동으로 전체 392가구로 공동주택(아파트) 329가구, 오피스텔 63실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공동주택 △84㎡A 269가구 △84㎡B 60가구이며 오피스텔 △69㎡A 42실 △69㎡B 21실이다.

이 단지는 동대구역세권 중앙에 위치해 대구지역 최고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이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도 예정돼 있는 트리플역세권의 뛰어난 입지다.

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12.3km 구간으로 환승역 3곳을 포함해 10개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구역세권이 지난 미래까지 또한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과 가까운 것도 호재다. 동대구역세권 일대의 부동산 가치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가치에다 2016년 개관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이 주민들의 편리한 삶을 보장해준다.

이밖에도 현대시티 아울렛, 이마트 만촌점, 파티마병원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동대구초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에

청구중고, 경북대학교, 동부도서관 등이 있다.

동대구역 골드클래스는 신천동과 신암동 일대 3만5000여가구 브랜드 대단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만큼 동구 지역 최고의 주거만족도를 자랑한다. 한편, 건본주택은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99번지에서 오픈 준비 중이다.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투시도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최대 113% 확대한다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주택 가격, 외지인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에 이어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균형 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관리, 분양가 안정,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2023년까지 주택 7만1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분양아파트 2만5528가구, 임대 4857가구, 단독·다세대 1800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927가구 등 3만411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2만148가구, 2023년엔 1만6703가구를 공급해 3년간 7만963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시는 2030년까지 12만9000



대전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1월 기준 101.4%인 주택보급률을 2030년까지 11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공공주택 대상지로 준공예정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 드림타운 계획이다. 내년엔 2만148가구, 2023년엔 1만6703가구를 공급해 3년간 7만963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침이다. 앞서 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외지 투기세력 차단에 위해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으며 고분양가 억제에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범비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되고 외지인 투기세력에 의해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